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회(WAGF)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려

대륙별 선교 보고, 미전도국가 선교전략 등 세계복음화 논의



감사패 증정.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회(World Assemblies of God Fellowship Executive Council Meeting)가 전 세계 200여 국가 36만 교회, 6천 8백만 성도를 대표하는 실행위원들이 참석하여 6월 14일(목)과 15일(금) 이틀간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전 원성전과 인양성전에서 열렸다.

이번 실행위원회는 15일(금) 은혜와진리교회 전 원성전의 선교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오전 회의에서는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조지 오 우드 목사의 인사말씀과 조용목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세계선교위원회, 신학위원회, 치세대위원회 등 세계하나님의성회 신하 기관장들의 보고와 대륙별 선교보고 및 신인 위원 소개 등의 순서가 있었다.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오찬을 함께 하고 수양관 정원 등 아름다운 은혜와진리동산을 산책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진 후 열린 오후 회의에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성회의 비전과 선교전략 및 미전도국가와 미전도종족에 대한 선교방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하였다.

회의 일정을 마친 실행위원들은 인양성전으로 이동하여 방송국 등의 시설을 둘러보고 식당에서 만찬 시간을 가진 후, 카이노스성전에서 공연 중인 GNTC 창작뮤지컬 '다 이루어졌다(It's Finished)'를 성도들과 함께 관람하였다. 공연이 끝난 후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조지 오 우드 목사는 무대에 올라 실행위원들을 대표하여 받은 은혜와 감동을 말씀하며 뮤지컬 단원들을 치하하였다.



이어서 실행위원 일행은 은혜와진리교회의 금요 예배에 참석하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금요 예배에서 은혜와진리교회 세계선교연합회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과이어와 성가대 그리고 미국하나님의성회 부총회장 게리슨 목사가 찬송과 피아노 연주로 실행위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선물하였다.

이어서 조지 오 우드 목사가 인양성전에서, 싱가포르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도미니 에오 목사가 수원성전에서, 미국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더글라스 클레이 목사가 안산성전에서 각각 설교하며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밤늦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조용목 목사와 석별의 정을 나누고 숙소로 돌아간 실행위원들은 이튿날 통역과 안내 봉사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국하였고,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조지 오 우드 목사와 미국하나님의성회의 김남수 목사, 최완기 목사는 은혜와진리교회의 주일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주일예배에서 조지 오 우드 목사는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으로서 하나님의성회의 발전과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며 이번 회의를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개최하도록 준비하시고 도와주신 조용목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이와 함께 조용목 목사와 성도들의 사랑과 환대에 대해서, 봉사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회의 광경.



카이노스성전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다 이루어졌다'를 관람하고 단원들과 함께 무대에 선 조지 오 우드 목사.



전원성전을 산책하고 있는 실행위원들.



은혜와진리교회 금요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조지 오 우드 목사와 말씀을 듣고있는 성도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조용목 목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지주 변하여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상대하면 힘들킨다. 반면에 변함없는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마음이 놓이고 즐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안도감이 가득하게 하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는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믿음으로 본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과 계절의 변화와 밤낮의 변화까지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큰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성경 용어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없다면 복음이 라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기도서 2장 1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어 성도와 불리게 되며, 천국에서 살게 되고,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 구원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진실함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밝히 증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들에 관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예언은 구세주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 예언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이 예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뜻밖에도 갑자기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하면 반드시 비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비웃은 결과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취급한 뜻의 사위들은 결국 유황불로 멸망당하였습니다. 가나인을 정탐한 열정탐꾼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낙담시키는 정탐보고를 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었으며,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 역시 임점일확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직면한 형편과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함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지식과 믿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각종 여름수련회 계절학기 등 준비 만전



제67차 총회 제2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임용재 목사) 제67차 총회 제2회 임원회가 지난 6월 26일(화) 오후 2시 순복음아멘교회에서 열려 동성에 귀여움제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을 막고 동성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막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의장 임용재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이경진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개회선언 후 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보고사항에서 교단 총무 신재영 목사는 교단업무보고사항으로 67차 정기총회가 은혜 가운데 성료된 것과 총회장 임용재 목사 취임예배, 부흥사회 임원

모임, 제67차 총회 1회 고시위원회 모임-고시일정 확정, 총회신학교 1학기 종강예배, 목회대학원 1학기 종강예배 등의 내용들이 보고되었다.

이어 재부 이은승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병희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임 청원, 교역자가임 청원, 교회주 소년경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건이 보고 결의되었으며 66차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각 국장과 각 위원장이 각각 연임 또는 새로이 임명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총회 목회대학원 2018년도 상반기 계절학기, 교육국 주관 제6회 청소년 힐링캠프 개최, 제67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개최, 전국사모연합회 월례회 개최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기총 청소년위, 교육 프로젝트 추진

한국교회 부흥 위한 교육세미나 등 개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조홍식 목사)는 지난 6월 12일(화) 오전 11시 제 29-1차 회의를 열고, 한국교회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교육하는 일을 진행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조홍식 위원장은 “청소년위원회가 유명 무실한 기관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미래를 책임지는 사역을 감당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청소년 복음과 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위원회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부위원장장에 이승우 목사(기독교연합)와 정창모 목사(예장예장)를, 서기에 박명균 목사(대한보수)를 각각 선임했다.

이와 함께 황지영(벨로체 재무이사), 지수용(한국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 박서영 법



무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주요 사업으로 회원교단 및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청소년 교육 프로젝트로 한국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무상 임시 설명회 및 교육 세미나’와 벨로체에서 진행하는 ‘벨로체 성서 체험전’을 통한 청소년 선교 후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위원회는 특히 벨로체유니온재단

을 통하여 2018년 헬로 바이블이란 주제로 성서체험전을 열기로 했다.

황지영 전문위원(벨로체 재무이사)은 “성서체험전은 청소년들과 한국교회를 비롯한 일반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초청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한기총 소속 교단 및 단체 물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 제33차 제1회 임시총회

정관개정안 수정 보완 통과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이하 한기보협)는 지난 6월 12일(화)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강서로 소재 동 협의회 예배실에서 제3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인도로 합동성경총회 박정준 목사가 기도를 문

화예설위원회 찬양단의 특송, 공동회장 김주상 목사의 단 1:8-9, 21 말씀을 본문으로 한 ‘뜻을 정하여’라는 제하의 말씀 선포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 제3차총회 김성립 목사가 ‘국가 안전과 통일’을 주제로, 법인이사 김영호 목사가 ‘한국교회와 협의회(총회, 단체)’를 주제로

각각 특별 기도를 인도했으며, 합동제일총회 이선연 목사의 헌금기도와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광고,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축도 순으로 마쳤다.

2부 제33차 총회 제1회 임시총회는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공동회장 이창희 목사의 기도,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총대원점명, 대표회장의 개회선언 등으로 회부에 들어갔으며, 이날 개정안 토의에서 한기보협의 발전을 위하여 원안을 수정 보완하여 통과시켰다.

이날 정관개정위원회는 공동회장 임준재 목사(개혁합동총회장), 조성근 목사(개혁총회장), 김주상 목사(일만교회세우기운동본부장), 진공열 목사(중부지방회 회장), 최남규 목사(합동연합총회장), 이의근 목사(자유감리회감독), 원현영 목사(예장여성총회장), 이창희 목사(합동보수 증경총회장) 등이다.

세기총, 제6차 한반도 평화 기도회

제68주년 6.25상기 기념예배도 함께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하 세기총)는 6월 24일 오후 7시에 군포제일교회(권태진 목사)에서 제6차 평화기도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소서’(엡 1:10)라는 주제로 제68주년 6.25기념예배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경기도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마친 후에 개최되는 기도회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750만 디아스포라(재외동포)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국내 성도들의 뜻을 모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순서는 대화장인 세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설교, 준비위원장인 군포제일



교회 담임 권태진 목사의 사회, 격려사에 세기총 초대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축도에 세기총 증경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평화기도위원장 고시영 목사의 대화사, 축사에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기연 대표회장 이동서 목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

교총장 정인찬 목사, 군포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지현 목사 등이 순서를 맡았다.

한편, 세기총은 제7차 평화기도회를 6월 26일과 27일에 미국 댈러스에서 개최하는 등 미국 하와이, 일본 동경 등 각국에서 평화기도회를 계속어나가기로 했다.

한성연, 제9회 정기총회 개최

대표회장에 김영수 목사 선출

한국성결교회연합회(이하, 한성연) 제9회 정기총회가 6월 14일(목) 오전 11시 천 나 사렛대 장학관에서 개최됐다. 신상범 목사(기성, 8회기 대표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조상을 목사(나성, 8회기 공동부회장)의 기도, 회원점명을 시작으로 회순통과, 경과보고, 임원선거 및 임원교제,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사, 공로패 증정, 안전토의가 있었다.

정기총회전 김영수 목사(나성 감독)의 사회로 드린 1부 예배에서는 황재오 장로(기성 부총회장)가 기도를 했으며, 이상문 목사(예성 서기)의 성경봉독 후 윤기순 목사(예성 총회장)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행 13:2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권석원(기성 전총회장), 김원교(예성 전총회장) 목사의 축사가 있었고, 각 교단 총무인 이관호(나성), 이강준(예성), 김진호(기성) 목사가 내빈소개 및 인사의 시간을 진행했다.



한편, 한성연은 신학, 교육, 해외선교, 국내선교, 사회복지, 부흥, 평신도 홍보출판, 문화체육분과 등 총 9개의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자문위원 임용호, 이영식, 김원교, 이동석, 신상범 목사, 이봉열 장로 △대표회장 김영수 목사 △공동회장 윤기순, 윤성원 목사

△공동부회장 조상을, 류정호, 문정민 목사, 장순필, 황재오, 김종상 장로 △서기 권익기 목사 △협동서기 이상문, 유선호, 조영래, 이봉조, 한만기 목사 △회계 송기전 목사 △협동회계 신전호 목사, 김종현 임호창 장로 △감사 이광진, 유승국 장로 △간사 이관호, 이강준, 김진호 목사.

한장총, 중부전선 최전방에서 기도회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 뜨겁게 기도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유중현 목사)는 지난 6월 18일(월) 중부전선 필승교회(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린 가운데 한장총 임원 및 목회자 42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도회에서 ‘싸움에서 이기기’ (엡 6:10~20)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유중현 목사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등의 우리의 큰 과제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하여 이기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힘을 기르고, 무장을 철저히 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기도 순서에서는 고병훈 목사(예장통합

피아선 부총회장)가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이승진 목사(합동중앙 총무)는 ‘튼튼한 국가안보 및 강한 군대를 위해’, 김광석 목사(대신 한남중앙노회장)는 ‘군복을 화를 위해’, 유병삼 목사(한국기독교부흥사회)는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과 영성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계속해서 북한군과 지역을 볼 수 있는 평화전망대로 이동하여 사단 군종참모의 한국 전쟁 시 피아간에 참혹한 희생이 있었던 격전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참석자들이 다시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하게 합심기도를 하였다. 이어 안보전학으로 제2땅굴의 발견 및 대처활동, 그에 따른 희생당한 여덟명의 우리 군인들의 희생 등의 설명을 듣고 직접 땅굴을 살펴보고 구 철원 지역에 있는 노동당사 건물을 방문했다. 이날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는 위로금을 전달했다.

세계선교협의회 임원 제20차 필리핀 단기선교

전교생과 예배드리고, 신발 450켤레 제공

세계선교협의회(World Mission of Korea, 회장 한규섭 목사, 총무 전순임 목사, 이하 세선협)는 필리핀 하일리 유치원과 아나폴라 초등학교, 하이스쿨을 방문하여 전교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발과 영양제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

예장중앙총회에서는 교사 18명과 전교생에게 신발 450켤레를 제공, 초등학교 1, 2학년 80명에게 서울약품(세공) 원기정 1병씩을 전달, 그리고 회원들이 생필품을 공급했다.

단기선교단(단장 회장 한규섭 목사, 총무 전순임 목사, 회계 송민자 목사, 임양팀장



김경수 목사, 임양팀 회계 전종호 전도사, 행정회 목사, 강사 권은숙 목사, 통역 치주

인전공방을 출국하여 6월 16일 오전 5시 30분에 귀국, 5박 6일 일정으로 단기선교를 마쳤다.

예성 여전도회전국연합 제64회 수련회

‘온누리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제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윤기순 목사)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황경숙 권사)에서는 6월 11일(월)부터 12일(화)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양양 낙산오션벨리에서 제64회 수련회를 개최했다.

‘온누리에 그리스도의 향기!’ (요 12:3)

이라는 주제로 열린 금번 행사는 첫째 날 교회예배(설교 윤기순 목사)를 시작으로 레크레이션(진행 최봉호 목사), 경배와 찬양, 저녁집회(강사 노윤식 목사), 장기자랑의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에는 새벽예배와 파송예배(강사 이흥배 목사), 둘째길 걷기, 오죽

한 여행 등의 시간을 가지므로 회원 간 친교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황경숙 권사(여전련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첫째날 개회예배에서는 서희자 권사(여전련회장)가 기도를 했으며, 윤기순 목사(총회장)가 ‘향유를 부어드린 헌신’ (요 12:1~3)이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예배에서는 이흥배 목사(총회 여전도부장)의 환영사와 이강준 목사(교단총무), 김원철(새전련 회장), 차춘련 장로(성전련 회장)의 축사, 문정민 목사(부총회장)의 격려사, 내빈소개가 있었다.

여전도회장 황경숙 권사는 이번 행사를 맞이하는 가운데 “이 땅에 성결의 사중복음을 전파하고 성결인들이 우뚝 서는데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명나눔 응원 열기로 가득한, 서울역 광장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대대적인 장기기증 캠페인 펼쳐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태, 이하 본부)는 지난 6월 19일(화) 서울역 광장에서 대대적인 거리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서울역 광장에서 자원봉사자와 본부 직원 등 35명이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서울역 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장기기증 희망 등록서를 배부했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 운동의 취지에 공감한 시민 20명이 사후 장기기증을 약속하기도 했다.



최형택 목사·한옥현 사모, 선교사 파송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6월 7일(목), 오전 11시 광양은혜와진리교회에서 최형택 목사·한옥현 사모 북한&땅을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사회로 부산동지방회장 홍현철 목사(은혜충만교회)의 대표기도, 청주지방회 총무 정이설 목사(형주한소망교회)의 성경봉독, 교단 증경 총회장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계 2:10 말씀을 본문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것은 목회자의 큰 영광이다"라며 "선교의 소명을 주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뒤돌아보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진 파송식에서는 파송패 수여와 전



국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선교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전 참석자들의 합심기도 후 교단 직전총회장 김영인 목사(광주목양제일교회)가 축사를 통해 "결단이 필요할 때 과감하게 결단하여, 편안한 생활의 안주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지막 열정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축복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권면에서 교단 부총회장 엄기설 목사(은혜와진양교회)는 "목회나 선교나 예수님께 미치지 않

고는 안 된다"며 "예수님께 사로잡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선교사역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하였다. 이날 선교사로 파송된 최형택 목사(광양은혜와진리교회 파송선교사)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선교의 사명을 향해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으며, 전라지방회 증경회장 김갑신 목사(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6월 8일(금), 녹동순복음교회에서 6월 정기월례회



를 가졌다. 이날 예배를 통해 회장 백영자 목사는 마 16:24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따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종, 목사라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증경회장 김갑신 목사(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의 축복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 순서를 모두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서기 및 회계 이태우 목사(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의 회원점령과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어서 전날 북한·땅을 선교사로 파송된 최형택 목사(광양은혜와진리교회)의 선교사역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선교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월례회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는 녹동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하며 더욱 단합되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은혜로운 지방회가 되자고 다짐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주의 종 다짐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6월 19일(화) 오전 11시 태전사랑교회(담임 정진학 목사)에서 6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진학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회계 허만운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대표기도와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온소망교회)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계 12:9-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D-Day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며, V-Day는 주님의 재림까지 이므로 우리는 승리한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본분을 다하여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룰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단 발전과 정책위원회, 신임 총회장과 임원을 위하여, 통성으로



법 반대와 차별금지법 무산을 위해, 대구(동성로), 서울(시정앞)에서 이루어질 쿼터축제 반대 서명 동참을 위해, 대구경북지방회 교회 부흥과 목사님 사모님 가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방회 서기 이항구 목사(주전양교회)의 헌금 기도와 증경회장 진영갑 목사(주전양교회)의 헌금 축복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의 인도로 서기의 회

원 점령과 재무 및 회계 보고를 받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기도로 월례회를 모두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그리고 태전사랑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눈 뒤, 장소를 옮겨 카페로 가서 시원한 디저트를 나누며 즐거운 합당 시간을 가짐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하였다.

목사 임직 예배 드리고 선한 일꾼 다짐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영호 목사)는 지난 6월 16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감바위길104 (조기8리) 순복음아멘교회(담임 임형순 목사)분당에서 시온성순복음교회 유천 전도사, 순복음아멘교회 윤진철 전도사의 목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임직예배는 총



무 감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조영진 목사(순복음부흥교회)의 성경봉독, 교회학교 교사(순복음아멘교회)의 특송, 지방회장 김영호 목사(순복음행복교회)의 설교, 재무 안재봉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헌금 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 목사는 딤편 4:6-16 말씀을 본문으로 '인정받는 선한 일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반드시 유념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영적인 권위를 세워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고, 인내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임직자에게 권면하고 축복하였다. 이어서 임직식은 인수 위원장 김영호 목사의 집례로 시작되어 엄하석 목사(주성교회)의 권면, 임영광 목사(연천순복음교회)의 축사, 총회장 임용재 목사(순복음산정리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진철 목사는 인사말에서 "임직식을 계기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욱 분발해서 복음전파와 영혼구원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광고와 인사를 마쳤다. 임직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준비한 선물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월례회 갖고 하기 수양회 준비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6월 18일(월) 오전 11시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침례한요양병원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산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경옥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조은혜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엡 1:22-23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정체성'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말씀을 생각하며,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후 재무 김연옥 목



사의 헌금기도 후 사회자의 광고, 서기 조은혜 목사의 수양회 설명, 증경회장 고영권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2부 회의에서는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 주재로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월례회를 통해 7월 월례회를 목회자 세미나로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여름 하기 수

양회 날짜와 지역을 의결하였다. 이후 병원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병원 시설을 둘러보며 환우들을 위로하고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

이후 담임 김연옥 목사의 사랑의 섬김으로 경치가 좋은 태종대 목장원 카페로 자리를 옮겨 교제를 나누고 다음 월례회를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6월 19일(화) 오전 11시 전주 순복음종은나루교회(담임 유관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최강욱 목사의 사회로 증경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표재욱 목사(성령왕국교회)의 말씀선교 순으로 이어졌다.

표 목사는 행 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 받아야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성령충만을 당부하였다.

이어 증경회장 김종호 목사(순창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의는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 주재로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오찬과 사우나로 목회의 정보를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 알게 되길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이은승 목사)는 지난 6월 12일(화) 오전 11시 호평순복음교회(담임 윤두환 목사)에서 6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재무 한신 목사(변포순복음교회)의 찬양인도로 시작하여 총무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와 부회장 한성용 목사(근나눔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신근철 목사(구리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와승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시 27:1-3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의 노래'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말했다. 이 목사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이며,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또



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고난은 기도하게 될 뿐 아니라 진정한 기도의 믿음의 고백이 드러지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라며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드러지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숙 목사(대포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후, 지난 1년 동안 지방회장으로 수고한 직전회장 유석구 목사(아바디순복음교회)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증경총회

장 조남영 목사(가평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의 진행으로 회무를 처리한 후 임흥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장소를 옮겨 호평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다.

세상의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목회자가 되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신동숙 목사)는 지난 6월 12일(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면 마로859에 위치한 밝은빛교회(증경회장 김남수 목사 시무)에서 월례회모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서성영 목사(북원교회)의 사회로 김진현 목사(세전순복음교회)의 찬송인도, 최정용 목사(민음교회)의 대표기도, 김효신 목사(천양교회)의 성경봉독, 김남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출 14:10-25 말씀을 본문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의 설

교를 통해 "진정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설교하였다.

이어서 이미경 목사(동방의빛교회)의 헌금기도 목회자 사모일동의 특송이 있었으며, 지방회장 신동숙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에는 지방회장 신동숙 목사의 진행으로 월례회 모임을 가졌으며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단과 지방회 회원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회부의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회 이유회에 관한 내용과 지방회모임 일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밝은빛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인근 주변 식당에서 갖고 회원들의 교제와 사랑을 나눔으로 지방회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였다.

생명의 말씀



김 장 수 목사

· 경기북지방회 중경회장
· 예순교회 담임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정 전부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 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었기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공의와 진리를 따르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기적이 세워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사회와 나라를 세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소중하고 가

한 사람의 존재와 가치

(렘 5:1)

치가 소중하므로 한 사람이 바르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그 눈은 성경을 통해서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눈이 있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순회하며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감찰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앎과 일어짐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오며 나의 길과 높은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악히 다 아시오니”(시 139:1-3)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후 심판대에서 만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과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제 압박 36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6.25전쟁의 잣더미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발전시키시

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유다나라는 죄로 인해서 기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렘 25:3-4)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들려서 듣는 ‘hearing’과는 다른 ‘listening’의 뜻으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말 좀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나리라”(요 5:25)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젊은이들이 대학가에서 집을 치고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집쟁이나 무당을 찾아다니면 멸망합니다.

셋째로, 한 사람의 의인은 국가의 앞길을 좌우합니다.

의인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 중요함니다. 유대인들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 사무엘의 절박한 기도가 나라를 살렸습니다(삼상 12:23).

한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라를 구했습니다(출 32:32).

때가 늦기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늦으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라”(렘 15:1)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기회로 주십니다. 나라의 장래가 교회에 있고, 목회자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 국가적인 문제에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달빛이 태양빛을 반사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요인에는 확고부동한 용기, 확고한 계획성, 강한 책임감, 상세한 지식 습득, 호감가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국적별로 보면 파키스탄, 이집트,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시리아, 나이지리아, 이란, 예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나라는 모두 이슬람 국가이거나 이슬람교 인구가 다수인 국가들이다.

유럽은 이슬람으로 인하여 ‘다문화정책’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유럽 국가들이 무슬림 난민들을 ‘상대주의’로 대하고 그들이 일으킬 문제에 대하여 대비하지 못했으며, 나중에 문제가 된 뒤에는 이를 해결할 방안들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럽의 이슬람 난민 사태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분명한 입장과 함께 최근 한국으로 갑자기 몰려드는 난민 심사와 분류, 사후 처리에 대하여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다. 어쨌든 ‘상대주의’와 ‘온정주의’가 부른 유럽의 실패를 우리가 답습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집합소가 되는 것도 곤란하다. 특히 국가의 안보와 치안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국적과 종교는 한국 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크므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슬람의 테러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하거나 인도적 차원에 서만 바라볼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살상과 테러는 무슬림(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신청하는

한국이 난민자들의 집합소인가?

한국이 갑자기 난민자들이 몰리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해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무려 9,94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무소별로는 서울이 6,448명, 인천이 2,227명, 부산이 326명, 광주가 409명, 대구가 175명이며, 특이한 것은 제주가 312명으로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 같은 경우 올해에만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을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뤄지고, 이에 대하여 ‘불인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벌이면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 2~3년까지도 비자 없이 한국에 머물게 된다. 그 사이에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생계

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5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138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 해 생계비 총 지출액은 8억 1,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2017년 말까지 13년간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총 32,733명이며, 이들을 국적으로 분류하면 파키스탄 사람이 가장 많아 4,268명에 이르고, 중국인 3,639명, 이집트인 3,244명, 나이지리아인 1,831명, 카자흐스탄인 1,810명, 방글라데시인 1,455명, 그리고 시리아인이 1,326명, 기타 국적자 15,160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2,266명이며, ‘불인정’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한 사람도 2,348명에 이른다. 2017년 말 현재 심사 중에 있는 사람은 7,209명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난민 신청자 중 40% 이상이 예멘 사람이라고 한다. 왜 이 다지도 난민들이 제주도로 몰리는가? 제주도는 관광을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무시중제도’를 도입하여 관광객이 비자 없이 30일간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비자 여행객으로 들어와 난민을 신청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난민 보호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난민을 인정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자칫하여 한국이 난민들의

동 정

유진벨재단, 대북 의료지원



유진벨재단(회장 인세반)은 다제내성 결핵(여러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 진단 장비인 진엑스 퍼트 10대 및 카트리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 회장 선출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 제4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정상운(60) 전 성결대 총장이 선출되었다. 정 회장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하고 확고한 실행의지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한국교회의 회개와 갱신, 연합과 일치, 신앙실현운동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CBMC 차세대 사역 논의



한국기독교실업인회(한국CBMC, 회장 이승윤)는 지난 6월 15일(금)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전국 지회장 단회의를 열었다. 임시총회와 결하여 열린 이번 지회장단 회의에서는 차세대 선교 사역의 연장선이 될 제45차 CBMC 한국대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헌신과 결의를 다졌다.

농선협 농촌복음화 전국대회



농협기독교선교회 전국연합회(회장 조완규)는 지난 6월 16일(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중앙본부에서 제37회 농협·농촌복음화 2018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6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깨어 기도하라’(마 28:40~44)라는 주제로 농협·농촌복음화와 발전, 북한선교 및 민족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10개의 농촌미지침교회에 선교비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9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8. 8. 31(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8. 9. 06(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8. 9. 2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8. 8. 31(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9. 2. 11(월)~12(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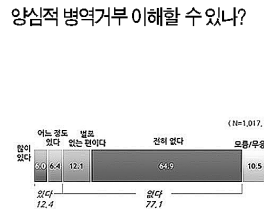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임웅재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

언론회,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다

〈도표1〉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있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 약 900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법원 187건, 2심 226건, 1심 470여건 등) 이렇듯 병역거부에 대한 것은 대부분 특정 종교인 '현호의증인' 신도들이 절대 다수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4년 이후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병역법(병역법 제88조1항)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우선은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양심'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짧은 시절 소중한 시간과 청춘을 바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비양심 세력'으로 만들어 불만과 불평등을 초래하게 한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과 16일 이들 사이에 유/무선 전화로 조사한 것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 3.1% 포인트를 차지한다.

이 조사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견해를 물었다.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동성애에 미치는 관련 인식'이다.

우선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해할 수 없다'가 66.8%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해할 수 있다'가 26.6%, 모름/무응

답이 6.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21.2%, 찬성이 73.4%를 차지하였다.

이런 현상은 지난 2년 전인, 2016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한국 갤럽을 통해 조사했던 것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이 72%를 차지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은 70%를 차지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난 2016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조사했을 당시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이유로 '감옥보다는 낫다' (26%)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6%) '다른 기회를 주어야 한다' (14%) '개인의 선택이나 인권문제' (12%)로 답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고 답한 것이 12.4%(많이 있다 6.0%, 어느 정도 있다 6.4%)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종교로 청년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었보였다. 또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가 33.9%,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33.4%로 비슷했으나, 40대를 뺀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10대~20대에서 39.7%로 가장 높아, 군복무를 감내한 연령층에서 느끼는 병역의무 공정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의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것이 40.3%,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이 53.4%로, 지난 해 한국갤럽이 조사한 동일한 설문 결과(동성애를 사랑의 형태로 본다 56%) 보다는 동성애에 대하여 사랑의 형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관

단들이 15.7%포인트 높아, 그 동안 국민들이 시민운동을 통해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그 효과 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 및 전투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가 70.5%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17.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에이즈로 인한 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보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국민들의 대다수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르고 있다 69.4%, 알고 있다 30.6%).

에이즈는 특정 성적 결합과 상당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건과 건강,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인 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바로는 특정 종교에 의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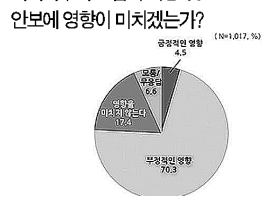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징병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일선 법원에서도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이 문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와 국가 안보와 헌법 적용과 국민간의 법 감정과 국민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한국 교회와 연관된 문제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의 의견과 함께 교회 밖의 의견도 들어 우리 사회와 교회가 소통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한국교회 대변자의 역할에도 충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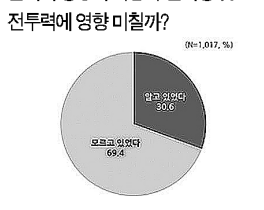
— 한국교회언론회

〈도표3〉
대체복무제 도입시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이 미칠것인가?



	찬성/알고 있다	반대/모르고 있다	모름/무응답
전체	4.5	79.3	17.4
성별			
남	3.8	76.6	19.6
여	5.2	82.0	12.8
연령			
19 ~ 29 세	7.2	51.6	41.2
30 ~ 39 세	4.0	65.9	30.1
40 ~ 49 세	3.9	73.7	22.4
50 ~ 59 세	4.0	78.1	17.9
60 세 이상	4.0	75.7	16.3
교육			
고	4.1	77.7	18.2
중	6.1	73.0	20.9
초	2.1	69.7	28.2
무	4.8	65.6	29.6
기타(모름/무응답)	0.0	66.7	33.3

〈도표4〉
군대내 동성애 허용시 군기강 및 전투력에 영향 미칠것인가?



	찬성/알고 있다	반대/모르고 있다	모름/무응답
전체	30.6	69.4	
성별			
남	28.1	71.9	
여	33.0	67.0	
연령			
19 ~ 29 세	26.9	73.1	
30 ~ 39 세	29.7	70.3	
40 ~ 49 세	28.4	71.6	
50 ~ 59 세	34.5	65.5	
60 세 이상	32.4	67.6	
교육			
고	30.0	70.0	
중	38.3	61.7	
초	29.2	70.8	
무	28.0	72.0	
기타(모름/무응답)	36.3	63.7	

서울시청광장 동성애 퀴어축제

허용 반대 기자회견

비른성문화위원한국민연합은 지난 6월 15일(금) 오전 11시 서울시청광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국민의 정서와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서울광장 동성애 퀴어축제 허용을 반대한다”

동성애옹호단체에서는 7월 14, 1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퀴어축제를 하겠다고 서울시청에 사용을 신청하였으며,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는 퀴어축제 허용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던 퀴어축제를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고, 시청광장을 함께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음란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서울시청광장 사용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 퀴어축제는 불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퀴어축제는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인 성소수자들의 문화행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연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2015년도부터는 서울시청광장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한 만큼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의 집회와 시위 역시 법과 사회적인 인식,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현재의 퀴어축제는 최초의 그 의미와는 다르게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퀴어축제가 성소수자들이 평범한 이성애자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리고, 차별과 혐오 인식을 개선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신촌 퀴어축제 이후 서울광장 퀴어축제로 이어지면서, 주최 측은 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에 충격 효과와 반박 학습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선정적이고 음란성이 가득한 퀴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2015년 행사에 대해서는 일부 참가자들의 노출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는 경찰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 서울광장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다른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광장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집회를 하더라도 다른 시민의 권리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부 노조, 단체의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 행위는 시민들에게 비판받으며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

나 퀴어축제는 정부가 아닌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인 폭력입니다.

퀴어축제를 통하여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내용이 미성년자인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광장에서 금지된 술판과 흡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란한 공연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폭력을 사용한다면 비록 이성애 축제일지라도 열리면 안 될 것입니다. 퀴어축제가 아닌 일반 대중행사로서 이런 음란한 행사가 펼쳐진다면 그 행사를 허가해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3. 음란한 퀴어축제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높이지 못합니다!

퀴어축제 주최 측은 퀴어축제를 통해 성소수자의 인권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란한 축제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소수자들은 음란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뿐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싶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퀴어축제를 한다고 해서, 서양의 음란한 행사를 우리도 무조건 따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만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4. 불법과 음란이 가득한 퀴어축제는 결코 서울시청광장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퀴어축제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축제이고, 법적으로도 경찰의 결정대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며,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광장 신정을 불수리 사유를 규정한 서울광장조례 제6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작년 2017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려하여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되, 작년 퀴어축제 주최 측에 서울광장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작년 퀴어축제에서도 똑같이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리나는 자녀들을 음란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잘 살펴서 많은 시민들을 물론 지리나는 자녀들이 음란과 불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8. 6. 15

비른성문화위원한국민연합 외 30개 단체일동
참여단체(총 31개)



결혼114 全國支社 및 會員 모집

【저 出産, 고령화 社會의 최대 관심 有望사업】

각 교회 미혼 남, 여 청년들의 결혼이 교회마다 심각한 점과 개척교회의 심각한 교회재정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결혼114와 함께 비즈니스선교와 전도를 위한 전국 지사를 모집하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학생 및 교회 중직자분들을 전국지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 4차産業革命 정보共有사업

1. SNS, 블로그 제작 支援
2. 매칭 本社 지원
3. 營業 및 商談 지원
4. 收入 年 4,000만원이상
5. 지역獨占 영업권부여
6. 新 사업기회 제공(여행업)

■ 결혼회원 모집

1. 등록비 年 54만원 最低비용
2. 基督教人 회원 多數
3. 전문직, 僑民회원 多數
4. 공무원, 교사, 대기업, 사업
5. 年 3회 결혼미팅파티 招請
6. 全國的 회원 多數

■ 결혼114와 他社의 서비스分析

비교항목 / 구분	서울 중개업체	결혼114	지방 중개업체
일반 회원 가입비(1년)	140만원~600만원	54만원	50만원~150만원
매칭 서비스 (1년)	4회+3회~5회+5회	셀프 매칭 무제한	5회 또는 성혼시까지
성혼사례비	없다	없음	200만원~300만원
특별 서비스(단체 미팅)	없다	년 간 3회이상 결혼미팅파티 초대	없다
콜백서비스	있다	있음	없다
서비스지역	전국	전국	지방제한적

☎ 상담전화(전국) 1566-5049

■ 홈페이지: WWW.결혼114.COM

■ 신고번호:대구-중구-국내-2015-0006호

논산다문화선교교회 창립감사예배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김병목 목사)는 논산다문화선교교회(담임 전일필 목사)는 지난 6월 24일(주일) 오후 5시, 창립예배를 드리고 다문화가족을 섬기며 복음화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만규 목사(좋은나무교회)의 사회로, 서기 차재현 목사(엘렌엘호동교회)의 대표기도, 애일리 성도의 특별찬양 교단 부총회장 엄기설 목사(은혜와찬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마 11:28 말씀을 본문으로 "다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역만리 고향을 떠나와 새로운 가족을 이루며 겪는 고단하고 외로운 모든 문제와 죄 짐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인생의 참된 안식과 평안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어 지방회장 김병목 목사의 창립공포



부회장 이만순 목사(한소망교회)의 권면, 이충만 목사(장구리장로교회)의 축사, 한글(현금송:전순종 권사 가족), 증경회장 정윤기 목사(안부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논산다문화교회 담임 전일필 목사는 여

호와 이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창립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문화 가족을 섬기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사명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환난 속에서도 예배자로서의 회복 간구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일선 목사)는 지난 6월 19일(화) 오전 11시 축복기도원교회(담임 김옥연 목사)에서 지방회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섬기는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김순구 목사(사랑이넘치는교회)의 기도예이 증경회장 원문경 목사(새중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원 목사는 계 11: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목회자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 성령충만하고 또 교회공동체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 회계 한정숙 목사(예수사랑교회)의 헌금기도와 지방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 포도원교회)의 축도로 예배순서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각부 회무를 보고하고 처리하였으며,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축복기

도원교회에서 섬긴 점심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모회 8차 정기 월례회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교단 전국사모연합회 제8차 정기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8년 7월 9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장소| 총회본부 302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TEL 02-2675-5181-3
|참석대상|
전국사모연합회 임원 및 각 지방회장 사모



고문 최혜선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은혜와진리교회



증경회장 김양란
안다옥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진주은평교회



증경회장 신동신
청신교회



감사 차추련
안동성곡교회



직전회장 한정은
가평순복음교회



회장 윤금자
목양제일교회



수석부회장 이정화
은혜와찬양교회



1부회장 김귀순
아세아순복음교회



2부회장 이은숙
정읍순복음중앙교회



총무 신명희
부강순복음교회



부총무 서수영
은혜충만교회



서기 이정희
순복음은혜와진리교회



부서기 전희진
순복음은혜교회



회계 김세희
괴산순복음교회



부회계 조순자
순복음은혜교회



재무 김숙향
안성평강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윤금자
총무 신명희 (010-5483-4005)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67차 총회 고시위원회 1차 회의

2019년도 목사고시일정 확정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는 지난 6월 21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67차 총회 고시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2019년도 목사고시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기 이석호 목사의 사회로 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들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위원들을 축복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목사고시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목사고시 서류접수 마감은 2018년 8월 31일(목)까지이며 목사고시는 2019년 2월 11일(월), 12일(화) 양일간 치러진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본지 1099호 4면에 게재되는 목사고시 세부일정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마음 체육대회...지방회 단합 도모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오병용 목사)는 지난 6월 21일(목) 제5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증평 스포츠센터에서 가졌다.

올해로 다섯 번째로 치러진 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방회 27개 교회 43명의 목회자 및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체육부장 조재호 목사(장대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지수 목사(엘림교회)의 기도예로 이어 지방회장 오병용 목사가 고전 9:24-27 말씀을 본문으로 ‘심을 만드실 따옴질 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오목사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칙대로 경기하는 것”이라며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경기에 임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어 체육위원장 김윤용 목사(증평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후, 체육부장 조재호 목사(장대교회)의 광고에 이어 곧 바로 경기에 들어갔다.

심판 안용식 목사(증평중앙감리교회)의 진행으로 청군(청주 동부권역 18개 교회, 팀장 유병일 목사)과 백군(청주 및 서부권역 18개 교회, 팀장 민병훈 목사)으로 나뉘어 총 8개 종목(공물기, 농구 자유투, 배구, 볼링, 투호, 피구, 족구, 계주)으로 경기를 가졌다.

이날 경기는 청군이 700점, 백군이 800점

을 얻어 백군이 승리하였으며, 가장 열심히 경기한 선수에게 주는 MVP상은 이문근 목사(이목순복음교회)에게 돌아갔고, 3부 순서로는 시상 및 경품권 추첨이 있었다.

한편 이번 체육대회를 위하여 지방회장과 체육위원장이 각각 고급 자전거 1대씩을 기증하였고, 그 외 증평회장들과 여러 교회에서 찬조금 및 상품들을 기증하여 풍성한 체육대회가 되었다. 끝으로 지방회장의 폐회 선언과 증평회장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체육 행사를 마쳤다.

<http://agpgs.aogk.org>

2018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홈페이지 : www.agtc.or.kr

2018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써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2018동성애퀴어축제 반대국민대회’

“동성애자, 사랑하고 치유하고 품고 선교해야 하는 대상”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오는 7월 14일 서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각 종단, 시민단체들이 퀴어축제의 그릇됨을 알리는 ‘2018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국민대회’ (대회장 최기학 목사)를 대한문광장에서 개최한다.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화) 여전도회관 2층 루이지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릇된 동성애축제를 반대하는데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반대국민대회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광장이 동성애자들의 선정적인 음란공연 축제 장소로 사용되는 것과 서울광장 퀴어축제가 국제화 되는 것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최된다.

또한 동성애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며 동성애에서 탈출한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더불어 현 정부의 친동성애적 정책을 비호하고 다수의 동성애 반대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금년 2018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국민대회는 문화 축제로 열리게 되며 대회는 1부 개회식(1시~1시 30분)을 시작으로 2부 교회 연합예배 및 기도회(1시 30분~3시), 대한문광장-송래문-서울시청-광화문-세종문화회관-대한문광장으로 돌아오는 3부 퍼레이드(3시~5시), 4부 국민대회(6시~6시), 5부 국민축제(6시~7시)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회장 최기학 목사는 “동성애 문제는 한국



교회가 병관할 문제가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인 시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가정이 훼손되고 음란과 잘못된 성문화가 성행동이라는 미명아래 유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또 “동성애를 한국교회가 막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와 성도 목회자들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번에 개최되는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국민대회에 한국교회 성도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한국교회가 사랑하고 치유하고 품고 선교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홍호수 목사도 “서울광장은 대한민국의 중심부다. 퀴어축제가 하얏던 것은 4년 전이다. 앞으로 이 축제가 외국의 여러 나라와 같이 하는 국제대회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현재 한국교회가 퀴어축제를 반대하고 있기에 그들의 퍼레이드가 서울의 한복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국민대회를 하지 않으면 퀴어축제를 허용한다는 인식을 갖기에 2015년부터 시작해온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동참해주시고, 청소년들이 에이즈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도록 모든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제선교방송TV문학, 강화도서 문학기행

평화전망대에서 예배도 드리고 백일장도

국제선교방송TV문학(회장 류한상 목사)이 여름을 맞아 강화도에서 문학기행을 가졌다. 지난 5월 29일(화) 가진 문학기행에는 동문학회 소속 회원 25명과 문인 5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원들은 먼저 강화문화관에 들러 대문호인 이규보, 정철, 권필, 김상헌 선생 등의 체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조경필 수필문학관과 강화성당을 둘러 평화전망대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총무 강순구 목사의 사회로 편집인 강말희 목사의 기도, 회장 류한상 목사의 장 1: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참 좋았더라’라는 제목의 설교, 발행인 양정부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명배단 앞에서 ‘통일과 평화를 위

하여’ 합심 통성기도를 가진 후 바닷가에서 백일장을 갖기도 했다. 이날 백일장 영예의 대상은 배미영 시인의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가, 최우수상은 서비아의 ‘빛 정문’이, 우수상은 시인 유영자의 ‘강화도를 품었던 하루’, 박희우의 기행문 ‘뜻깊은 하루 5.29’가, 장려상에는 시인 박연자 사모의 ‘평화전망대에서’, 시인 김광욱의 ‘강화도의 하루’, 시인 은복희의 ‘강화를 가며’가, 참가상에는 시인 박재현 목사의 ‘강화도 큰 나무’, 시인 김주명 장모의 ‘굴개 세우소서’가 차지했다.

또 공로상에는 시인 류한상 목사의 ‘강화선’을, 기여상에는 시인 강순구 목사의 ‘강화도 가는 날’, 시인 임덕근 목사의 ‘강화도에서 바라본 통일’의 기도가 각각 받았다.



제6회 하이패밀리 사모세미나 개최

“우리시대 사모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모들의 의식조사로 사모들의 정체성을 세운 하이패밀리가 사모세미나를 연다. 변방에 밀려나 있던 사모들의 사역영향과 전략이 제시된다. 무엇보다 사모들이 직접 나서 자신의 사역현장에서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나눈다. 사모화를 한 번 더 들여보거나 익혀 본 일이 없던 사모들이 어떻게 가정회복사역에 눈을 뜨게 됐는지 핵심이다. 단순한 보조자의 자리에서 동역자의 자리로 나서 교회와 성도를 품는 한 축이 됐는지를 나누게 된다.

7월 2일 가족테마파크 W-스튜디오에서 열리게 되는 여섯 번째 사모세미나의 주제는 “지리형 가정사역과 사모역할”이다. 이번 사모 세미나를 주관하는 김향숙 대표를 말한다. “우리 모두 ‘아빠사모’가 됐잖아요. 신학교의 교과과정에 ‘사모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1세대 사모들의 문물

겨운 헌신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데 특징이 있다. 현재 교회에서 진행했던, ‘중년부캠프’, ‘가족수련회’, ‘영유아부모교실’, ‘사춘기부모교실’, ‘부부행복학교’ 등의 사례를 나눈다.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했던 이야기가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대형교회의 모델이 나뉘기보다 중소형 교회가 살아남 길이 있다는 희망의 선언이기도 하다.

세미나와 더불어 사모들이 꾸민 축제 한바탕 등의 순서를 통해 목회현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날 행사는 ‘잠옷에 수면의학’으로 유명한 <고후나비>와 미네랄 바이오 화장품의 <미바 화장품>이 협찬해 사모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게도 된다.(참가문의: 031-772-3223 하이패밀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제97회기 정책수련회 개최

은급주일 제정 필요성 거론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윤기순 목사) 제97회기 실행위원 및 기관장 정책수련회가 지난 6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됐다.

실행위원 34명과 산하기관장 포함 총 56명이 참여한 금번 행사에는 상호 간 친교와 대화 그리고 타문화 이해 체험 등을 통해 서로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임원회, 실행위원회, 수요예배, 기관보고,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은급주일 제정의 필요성이 거론됐으며, 총회 유지비 1%와 은급유원비 1%를 합쳐 총 2%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들 모두가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교단 은급제도가 유지비 1% 인상을 통해 미래 교단연급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연금보다 나은 투자처가 되도록 한다는 복안은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교단 총무 이강준 목사는 바쁜 일정 가운데 필리핀지방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For your Healthy Life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 A, 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제68주년 6.25 상기 연합예배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 기도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연합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사단법인 세계기독교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 사단법인 세계기독교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가 연합 하여 지난 6월 25일(월) 종로구 율곡로 190(연지동)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기원교단 임원 및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68주년 6.25 상기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연합예배는 사단법인 세계기독교교회연합회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신앙고백한 후, 찬송가 521장을 합창하고, 사단법인 세계기독교교회 총재 김권현 목사의 지도에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배총회총무 정현 목사(시 42:1-11 말씀을 봉독하고, 김병섭 목사의 색소폰연주와 개혁신교단 찬양에 이어, 박형렬 목사(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는 '평화의 민족 (시42:1-11)'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

나님의 섭리와 영역주권의 대한민국이 다름 없는 평화의 민족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에 참석한 3개 연합단체가 종교다원주의를 탈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주권을 믿으며 개혁신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이어서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사단법인 세계기독교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가 기도하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연합회와 사단법인 세계기독교교회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3개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부흥총회 부총회장 서경숙 목사가 기도하고, 복음으로 남북통일을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교회총회 부총회장 정광웅 목사가 기도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신교회 총회장 강희준 목사가 인사와 광고를 한 후, 찬송가 492장을 합창하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중수교 26주년 기념 '중화연대회'

아신대, 선교중국어학과 금상·장려상 수상

이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중국어학과와 두 팀이 '중화연대회'에서 각각 금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난 6월 9일(토) 국회의원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중화연대회'에서 홍대성, 양지현, 조혜정, 권환술, 조성국, 김진경(이상 6명)은 공연부분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문석진, 전하리, 김세광, 노영현(이상 4명)은 공연부분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과 한·중수교 26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양국의 위대한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각 '컬버트합창'과 '육방의 반도인(연극)'으로

표현해 냈다. 이날 선교중국어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적극 응원했고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이 대회는 귀화전력이 없고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재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중국어 프리젠테이션 또는 공연 종목으로 지원한다. 본 대회를 통해 양국 간의 문화우호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이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중국어학과는 중국전문인으로 활약하는 기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열정의 전도로 한국교회 깨우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로서 부득불 할 일임을 알면서도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 고후 11:23-33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전도함으로써 따르는 고난을 직접 체험한 사도바울의 간증이 나온다.

나는 이번에 명성수양관에서 있었던 박영수 목사의 전도 간증을 보고 들으면서 전도는 부득불 할 일임을 깨달았고 전도함으로써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마 5:10-12, 계 22:12). 이는 나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사명을 깨닫게 하는 집회였다.

박영수 목사의 전도 방법은 독특하며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전도법이 많이 닮아 있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또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의 권세로 축복기도를 해주고, 요 1:12 말씀을 알려주고, 영접기도를 그 현장에서 따라하게 하

고, 이름과 전화번호와 집주소와 가족들의 이름, 그리고 주일 예배 출석 약속까지 받으며, 교배를 붙이는 기하학적 전도법이다.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이 전도법을 보고 들으면 박영수 목사의 확신 있는 전도의 열정과 예수님 사리가 묻어나와 놀라움을 느끼는 한편, 나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한다.

작금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쇠퇴함을 보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 특별히 전도는 해도 오지 않는다는 깊은 패배의식이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 교회들은 고사 직전의 나무와 같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 때에 박영수 목사 같은 열정을 가진 전도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와 한국교회를 깨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나도 목사로서 박영수 목사의 전도의 열정 그리고 사명과 예수님 심장을 본받고 싶다.

당전에서 조요한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예장통합·CTS, 마을목회 활성화 업무협약식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세우는 큰 희망 될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CTS가 업무협약을 갖고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마을목회와 다음세대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예장통합 총회장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예장 통합총회 최기학 총회장과 변창배 사무총장, CTS 고정원 사장과 황우중 이사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TS는 연중캠페인 <다음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를 통한 예장통합총회의 마을목회 전략과 방안을 기획 보도해 한국교회와 공유하고, 예장통합총회는 CTS의 제작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각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예장통합총회 최기학 총회장은 “마을목회 활성화를 위해 CTS와 협력하게 돼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마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CTS 고정원 사장은 “마을목회 모범사례들



을 CTS에서 기획 보도함으로써 마을목회를 목회 현장으로 보다 넓게 확산하는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세우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TS는 오는 8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CTS 뉴스에서 연중기획 <다음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를 통해 예장통합총회의 마을목회 모범사례를 보도할 예정이다.

CTS인터내셔널 찬양선교단 창단 및 후원회 발족 기념

‘1% 섬김의 나도 선교사’ 찬양 콘서트 개최

CTS인터내셔널(이사장 감경철)은 지난 6월 26일(화) 오후 7시 CTS아트홀에서 찬양선교단 창단 및 후원회 발족 기념 “나도 선교사”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1% 섬김의 나도 선교사’ (이하 ‘나도 선교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나도 선교사 캠페인은 열방에 파송된 미자립 선교사를 돕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시간과 수입의 1% 섬김을 통해 “나도 선교사”가

되지는 취지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강성훈, 김석균, 김관호, 김민석, 김브라이언 김소인, 남궁송옥 박지현(VOS), 손재석, 신현진, 조수진, 지미선, 이정립, 최혜진, 함부영, 황국영, 국악밴드쇼 등이 포함된 CTS인터내셔널 찬양 선교단(이하 찬양 선교단)은 지난 5월 9일 창단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이 ‘나도 선교사’라는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CTS인터내셔널의 주대준 회장이 주도하는 후원회 발족식을 시작으로 ‘선교로의 초대’ 찬양 콘서트가 펼쳐졌다.

행사에 앞서 CTS인터내셔널 박준서 사무총장은 “찬양 선교단의 은혜로운 찬양 속에 우리가 있고 있던 ‘나도 선교사’의 비전이 성도를 가슴 속에 불같이 타오를 것”이라며, “마지막 때 지상평영인 ‘나도 선교사’의 위대한 여정에 초대한다”고 말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장총연 제68회 6.25 국가기도회 “국가안보와 한국교회를 위해”

6.25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뜨겁게 기도
국가안보와 한국교회를 위해 에스더의 심정으로 결의



이광목 목사
예장총연 대표회장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목 목사, 이하 예장총연) 제68회 6.25 국가기도회가 지난 6월 25일(월) 오전 11시 뽕엘 워터교회(담임 김원식 목사)에서 열려 전쟁의 참화로 생이별을 했던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재계된 남북대화로 한반도에 평화와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로!’ 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날 1부 예배는 예장총연 상임회장 차득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한 후 상임회장 장승우 목사의 대표기도, 한기연총신 총회장 이병수 목사의 성경봉독, 예장평신총회 임원진과 예장합동전국연합 총회 임원진의 특송, 고문 육옥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육 옥수는 갈 6:17-18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의 흔적’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6.25 동란이란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피폐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 나남께서 들어주셔서 복음국가가 되게 하시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됨을 감사드리다”고 전하고 최근 남북미 대화를 평화로 이끌어 내는 데 힘이 되도록 복음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

을 축복했다.

상임회장 김광호 목사는 축사를 낭송하며 마음의 각오를 다졌으며 특별기도로 남북 간의 협력과 평화를 위해, ‘정계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위해’, ‘한국 경제와 사회 복지를 위해’, ‘한국교회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해’, ‘세계선교와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사)예장총연의 부흥을 위해’ 황대영 목사, 오선미 목사, 권혁은 목사, 하석수 목사, 손영란 목사, 강사랑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서 고문 김태경 목사의 축사, 자문위원 박용기 목사와 조요한 목사의 격려사, 장4동아린이집 강경옥 원장의 헌금찬양, 회계 김마리 목사의 헌금기도, 뽕엘워터교회 담임 김원식 목사의 인사말,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김수영 목사의 경과보고, 대표회장 이광목 목사의 인사 및 광고, 부서기 정찬희 목사



의 6.25기도회 결의문 낭독, 자문위원 황근옥 목사의 만세삼창, 자문위원 이태주 목사의 축도로 제68주년 6.25 특별기도회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대표회장 이광목 목사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오늘의 자리를 잊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원들은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6.25 전쟁으로 인해 극도로 피폐해진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발전과 선교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임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나라를 가꾸어 갈 것을 결의했다. 회원들은 또 차별금지법 반대, 종교다원주의 배격,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며 한반도 평화정착, 국가번영과 경제발전, 국가안보와 한국교회를 위해 한미애를 되여 뜨겁게 기도하며 결의했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7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 아 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7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8년 7월 9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7월 3일(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6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임 우 재
총 무 목사 신 재 영

정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강력 대처

“7월 국무회의 상정 통과시킨 후 대통령령 공포 2022년 집행하려 한다”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7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해 2022년까지 집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 한 관계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조항(종교와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국어사전에 성소수자 등제, 젠더성평등관련조항 제정, 헌법, 공무원 및 경찰청 성평등 교육,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양심적병역거부 수용과 대체복무제, 군인권교육, 이를 반영한 지자체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교육 실시 등등)이 있음에도 위헌적 초법적 편법으로 국가인권위와 법무부를 시켜 국정 과제라고 한 정부 인권정책을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키려 하고, 공포하려 한다”면서 “대통령령이나 훈령으로 공포되면 정부 소관 부처와 기관이 기본계획대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고 정기적으로 그 이행상황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인권정책자문단과 인권위와 시민사회가 이행 상황을 점검해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도 안 되고 국회에서 법률로도 안 되니, 국정과제라는 발미로 대통령령으로 훈령으로 정해서 각 정부 부처와 기관과 지자체까지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 될 경우 한국교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동성애자 동성간 결혼에 대해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설교를 한다거나 말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고를 한 관계자들이 정서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소송을 할 경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 한국의 경우 목회자나 기독교인들, 가정에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동성 커플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다가 엄청난 소송에 휘말려 배상을 해준 판례가 있다.

이번에 통과 될 경우 결혼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교 시간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해서 는 안 된다. 설교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문제점 1.종교와 동성애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동성애 옹호하는 성평등 정책 시행 3.공무원 및 경찰청 성평등 교육 4.아동청소년에게 성 인권 교육 5.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 검토 등 절박한 마음으로 온갖 목소리가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7월 중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통과되면 모든 정부 기관이 이 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게 되고 교육, 방송, 군대 등에 대한 이런 정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방향이 동성애옹호 쪽으로 바뀌는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반대활동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기총을 비롯한 한국교회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한다.

개혁주의목회자협의회 기도대성회 및 WCC 세미나 개최

WCC의 종교다원주의 주장 경계 목소리 높여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세계교회협의회(WCC)에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개혁주의목회자협의회가 19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6.25 전쟁 기도대성회와 WCC 세미나에서 진리에 대해 타협을 시도해 훼손하는 것에 대해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경철 박사(前 고신대학교 교수)는 ‘위기의 한국, 표류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그리스도’란 말제를 통해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국의 현재 모습은 멸망직전의 이스라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패망직전의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죄악은 우상숭배였다”고 지적 했다.

김 박사는 또 “한국에서 2013년 10월에 개최한 WCC 행사는 종교 다원주의 행사였다”면서 “그 행사를 통해 동성애, 공산주의 그리고 그 밖의 비성경적인 이데올로기와 매우 친밀한 유대관계에 있음을 백일하에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박사는 “한국교회에 담긴 모든 종말론적 위기 상황들은 WCC를 옹호하고 옹호한 한국교회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박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는데 WCC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우주적 그리스도’를 주장함으로써 결국 지주의 권세에 굴복하게 된 것이다”라



면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분이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에는 신사 참배, WCC 행사 등 우상숭배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주의목회자협의회(총재 최병국 목사) 주최로 열린 6.25전쟁 기도대성회는 조요한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 정권 목사(부상원회장의 기도, 총재 최병국 목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란 제목의 설교말씀을 전했다.

최병국 목사는 “복음통일을 위해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해야 할 때다”라면서 “하나님 목소리로 나아가는 때에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것을 믿는다”고 피력했다.

최 목사는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을 살리

셨다”면서 “뱃물 타지 듯 쏟아져 나오는 종교다원주의를 비롯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지행되고 있는 동성애 등 비 성경적인 것들을 기도의 힘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목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철저히 WCC를 배격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통합된 노회들을 위해(백승철 목사), 교단발전과 통합원칙을 위해(송윤숙 목사), 6.25 희생자들을 위해(윤재봉 목사), 평화통일을 위해(조요한 목사) 각각 특별기도하는 시간에 이어 김학필 목사의 축도순으로 진행했다.

사설

세계선교의 비전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회의(World Assemblies of God Fellowship Executive Council Meeting)가 전 세계 200여 국가 36만 교회, 6천 8백만 성도를 대표하는 실행위원들이 참석하여 6월 14일(목)과 15일(금) 이틀간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전원성전과 인양성전에서 열렸다.

15일(금)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의 선교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오전 회의에서는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조지 오 우드 목사의 인사말씀과 조용목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세계선교위원회, 신학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등 세계하나님의성회 산하 기관장들의 보고와 대륙별 선교보고 및 신입 위원 소개 등의 순서가 있었다.

오후 회의에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성회의 비전과 선교전략 및 미전도국가와 미전도종족에 대한 선교방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확산이 정체된 가운데 부흥과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세계하나님의성회는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로 전 세계에 6천 8백만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 복음전파를 위해 기도와 헌신을 이어오고 있다. 2016년 4월 뉴욕에서 열린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50만 교회, 1억 성도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2019년도 목사고시위원회 첫 모임이 지난 6월 21일 열렸다. 한국교회와 교단의 내일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들의 배출은 우리 교단의 내일이요 비전이다. 한 사람의 목사가 배출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신의 작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유롭지 않은 환경에 가족과 친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정성어린 후원들이 모여져 신학 4년, 대학원과정 2년, 현장 목회 수련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목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 10개월에 이르는 2019년도 목사고시과정을 통해 처음 품었던 그 마음 주님께서 부르는 그 날까지 변치 않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했던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충직한 일꾼이 되어 전 세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세계하나님의성회의 일원으로 세계선교의 비전을 실행하기를 기대한다.

자유는 힘이 있어야 쟁취할 수 있다

최근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채 “민주주의”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국정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강화된 전략적압박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로 더욱 가깝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전략을 수정했다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각종 대북 안보관련 주요 사항들을 하나둘씩 풀아주고 있어 안보태세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가 입증하듯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힘이 있어야 쟁취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실제 이를 몸으로 가슴으로 자유없는 설움을 겪은 민족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일에는 후회의 소용돌이 없어야 한다. 힘 없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곤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2018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시 : 2018년 7월 2일(월) ~ 5일(목) 3박 4일
- 장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등록마감 : 2018년 6월 29일(금) 17:00
- 문의 : 02)2677-0692(본 대학원 행정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7차 총회 총회장 임웅재 목사 취임 감사예배

조용목 목사, 철저히 성경대로의 복음전파를 위해 힘써온 총회장 임웅재 목사 취임 축하



총회장임웅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7차 총회 총회장 임웅재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6월 26일 (화) 오전 11시 순복음아멘교회 (담임 임형순 목사) 대성전에서 드려져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온 종교다원주의를 비롯 그릇된 이단사이비를 몰아내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교단 총무 신재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엄기철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이은승 목사의 성경봉독, 아멘교회 베들레헴중앙단의 찬양, 경기지방회 임·회원들의 찬양,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수 5:13-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했던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는 사역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초개와 같이 여길 줄 아는 사역자가 돼야 함”을 강조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기를 먼저 살피고 분별하여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울러 철저히 성경대로의 복음전파를 위해 힘써온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설교에 이어 교단 회계 조병희 목사의 헌금기도 후 교단 증경총회장 진동용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교회



성교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축사 증경총회장 진동용 목사



격려사 직전총회장 김양인 목사



기도 부총회장 엄기철 목사



사회 총무 신재영 목사



광고 서기 이경진 목사



성경봉독 재무 이은승 목사



헌금기도 회계 조병희 목사

의 미래를 위해 막중한 사명을 부여 받은 총회장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했다.

직전총회장 김양인 목사는 격려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크게 쓰임 받는 사역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기도와 마음으로 후원할 것

을 다짐하고 격려했다.

교단 신임총회장 임웅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총회장의 중책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함주어 말했다.

교단 서기 이경진 목사와 순복음아멘교회 이수용 장로의 광고,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으며 참석한 회원들은 한국교회에 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을 다짐하기도 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교단총회장



임웅재 목사 총회장

지도고문



김인연 목사 증경총회장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번영교회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부흥사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제주한미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회장	상임위원
조용목 목사 (은혜와인교회)	김성용 목사 (정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진동용 목사 (새소망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연주은혜와인교회)	최광덕 목사 (일신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김양인 목사 (복음제일교회)	임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정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번영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인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오승욱 목사 (선안서복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신종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서경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중앙교회)	최경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미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신교회)	김마을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번영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평안교회)	박홍열 목사 (오성사랑교회)	성기찬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삼촌교회)
서기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양은혜 목사 (영조교회)	김종현 목사 (은혜교회)	최남진 목사 (동경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김연옥 목사 (형북한신교회)	이희숙 목사 (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 (순복음리교회)	홍현자 목사 (시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정환주 목사 (순복음빛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서병석 목사 (가나안영성교회)	옥보에 전도사 (순복음아멘교회)	정예서 전도사 (예수왕기교회)	김남수 목사 (복음빛교회)
회원																	
최승수 목사 (순복음삼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